

(제5편) 미국의 농업관련 국제협력 현황 및 관련 정책

이규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¹⁾

1. 들어가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URAA)은 시장접근 장벽, 국내 농업 지원, 수출 보조금에 대해 새로운 원칙을 부과했고, 비관세 조치를 위한 규칙을 설정했다. UR협정 이후 2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농산물 교역에 정부의 개입은 진화했고, 농산물 교역은 팽창해왔으며, 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국가들과 기타 부각되는 경제가 중요한 농산물 교역자가 되었다.

미국의 입장은 비록 관세 축소와 수출보조금의 제거 등과 같은 명백하고 투명한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관세, 비관세 조치, 국내 정책에서 보다 나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계 농산물 교역량은 매년 평균 3.5%에 이르는 견고하고 빠르게 증가했다. BRIC 국가들의 수출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빨리 증가했다. 중국의 성장으로 수입도 크게 증가했지만, 유럽의 수입은 아주 느리게 증가했다. 대규모 교역 국가들은 농산물 수입관세를 15-22%, 세계무역기구에서 정한 최대 한은 46%이다.

국가들의 수입관세는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의 농산품을 수입하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의 한정된 시기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더해 지역의 무역협정이나 양자 간 협정을 통해 농산품에 우호적인 관세조치를 한다. 약간의 선진국들은 직접지불 등의 제도를 통해 생산자를 지원한다.

1) leegyucheo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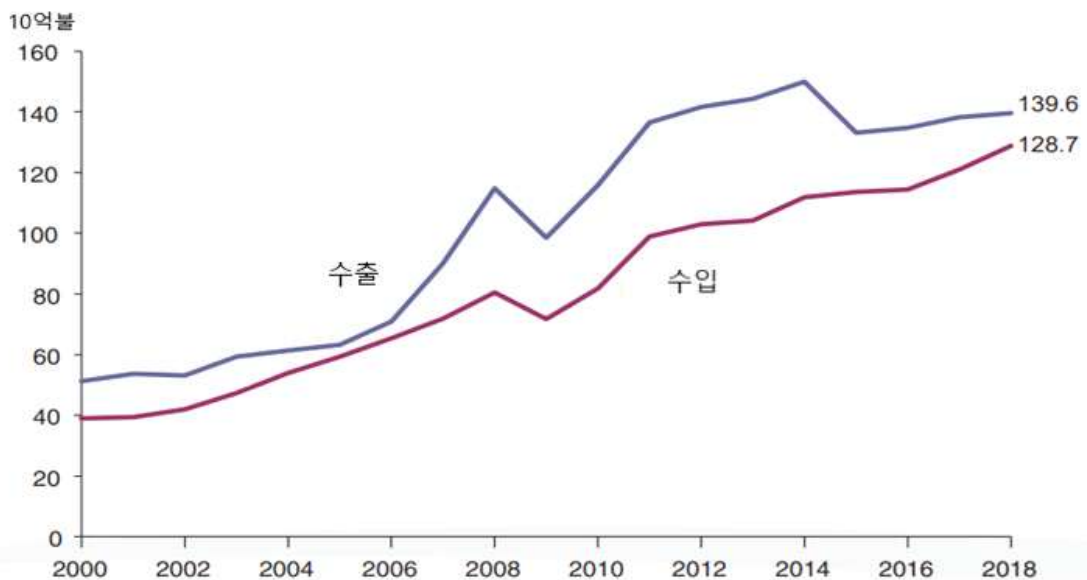
농산물 교역은 축산이나 작물에서 시작된 다양한 변화를 포함한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따라 생산, 소통, 수송 관리에서의 기술적 변화가 지난 20여 년간 교역의 획기적인 증대를 촉진했다. 미국과 세계의 교역은 세계인구, 경제성장, 소득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세계시장의 성장과 안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 다른 요소는 세계의 수요와 공급, 환율의 변화, 정부의 지원, 그리고 보호무역정책 등이 교역에 영향을 미친다.

2. 미국 농산품 교역 현황

미국의 농산품 교역도 세계의 교역에 따라 성장했다. 평균 1.4% 이상 달성하여 1995-1999년에 연 평균 850억 달러가 2011-2015년에는 1,050억 달러가 되었다. 미국은 EU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산품 교역국이다. 지난 4반세기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팽창과 외국시장에의 접근성을 확대하게 했던 정책을 통해 미국의 수출입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미국의 농산품 교역은 지역적 분포나 농작물의 구성이 변화했다. 2005-2006년에 농산물 교역의 흑자규모가 가장 작아졌다가, 2015년까지는 흑자폭이 커지다가 2016년부터 흑자규모가 다시 작아지고 있다(그림 1).

<그림 1> 미국 농산품 교역 변화 추이(2000-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foreign Trade Census, 2020.

2.1. 농산품 교역의 미국 경제 효과

2018년의 상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농산품 수출은 농장과 비 농장 부문에서 농업생산, 고용, 소득과 구매력을 지원한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 미국 농산품 수출은 1% 증가하여 1,396억 달러였다.

ERS의 분석에 따르면, 1달러의 농산품 수출은 사업활동에 1.17달러만큼 자금을 준다. 이는 1,396억 달러의 농산품 수출은 경제활동에 1,629억 달러를 추가하여 총 3,025억 달러의 효과가 있게 된다. 또한 10억 달러의 농산품 수출을 위해서는 약 7,500개의 일자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체 농산품 수출을 위해서는 1,048천 개(691천 개 비 농장 일자리 포함)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수입의 측면에서, 미국의 수입은 1,287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의 마이너스 효과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수입량만큼의 농산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가치를 계산하여, 수입으로부터 오는 이론적 경제적 손실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커피, 바나나, 코코아와 같은 농산품의 수입량을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하지만, 단순히 손실로 본다면 2018년의 수입 1,287억 달러가 국내에서 생산된다면 국내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2,497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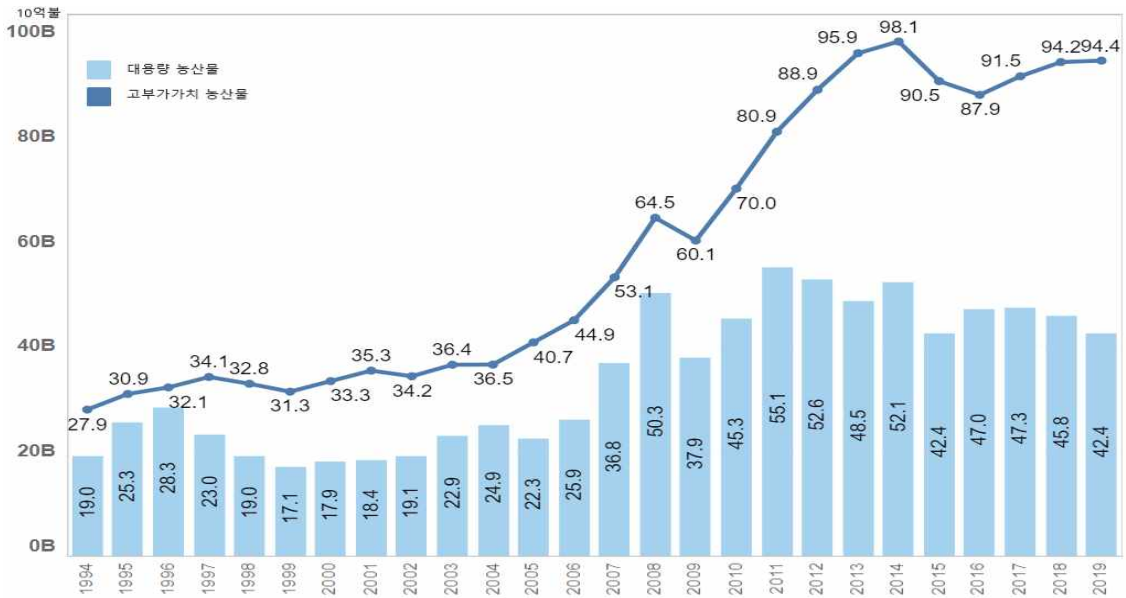
2.2. 미국 농산품 수출 현황

많은 농작물의 국내수요보다 미국의 농산물 생산은 빠르게 증가해서, 농업인들과 농기업들은 가격과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시장에 의존해오고 있다. 그 결과로 미국의 농산품 수출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1994년의 461억 달러에서 2019년 1,367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농산품 수출의 제품 구성은 세계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자 지향의 유제품, 육류, 과일과 채소 등 고부가가치 수출제품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세계의 인구 증가와 식생활의 다양성, 소득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 2>와 <그림 3>이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대용량(벌크) 수출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 2017년까지 줄었고, 최근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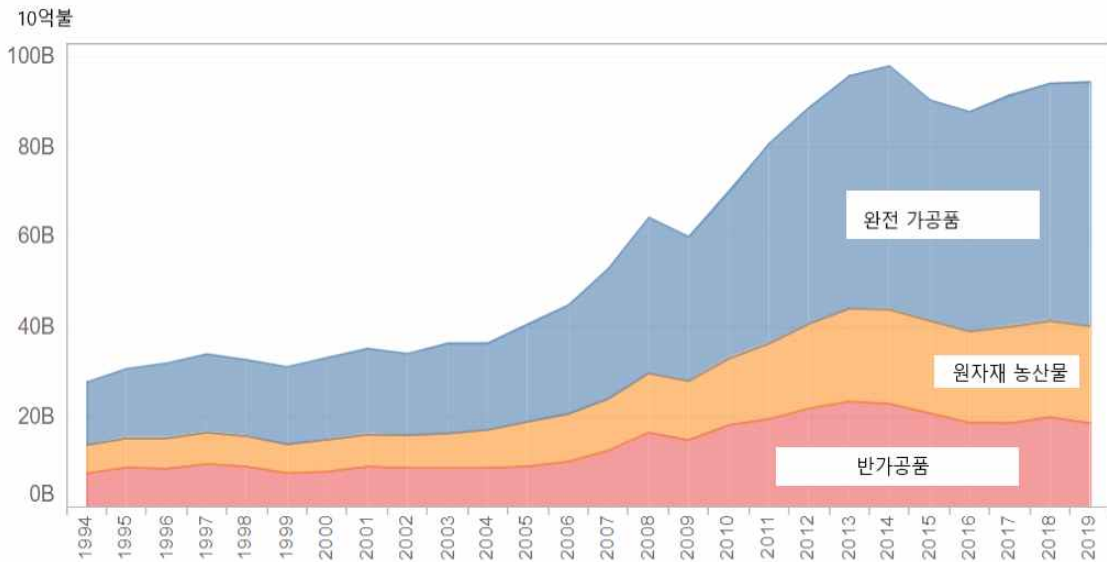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미국의 대용량과 고부가가치 농산품 수출(1994-2019)



주: 대용량 농산품: 곡물, 유지종자, 면화, 담배.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2020.

<그림 3> 연도별 미국의 가공수준별 고부가가치 농산품 수출(1994-2019)



주: 고부가가치제품: 완전가공품, 원자재농산품, 반가공품을 포함(완전가공품: 육류, 우유, 곡물제품, 가공과일과 채소, 주스, 와인, 비알코올 음료, 에센셜 오일, 열대작물제품; 반가공품: 사료, 밀가루 기름, 설탕, 섬유소; 원자재농산품: 생동물, 과일과 채소, 견과류, 건조과일 및 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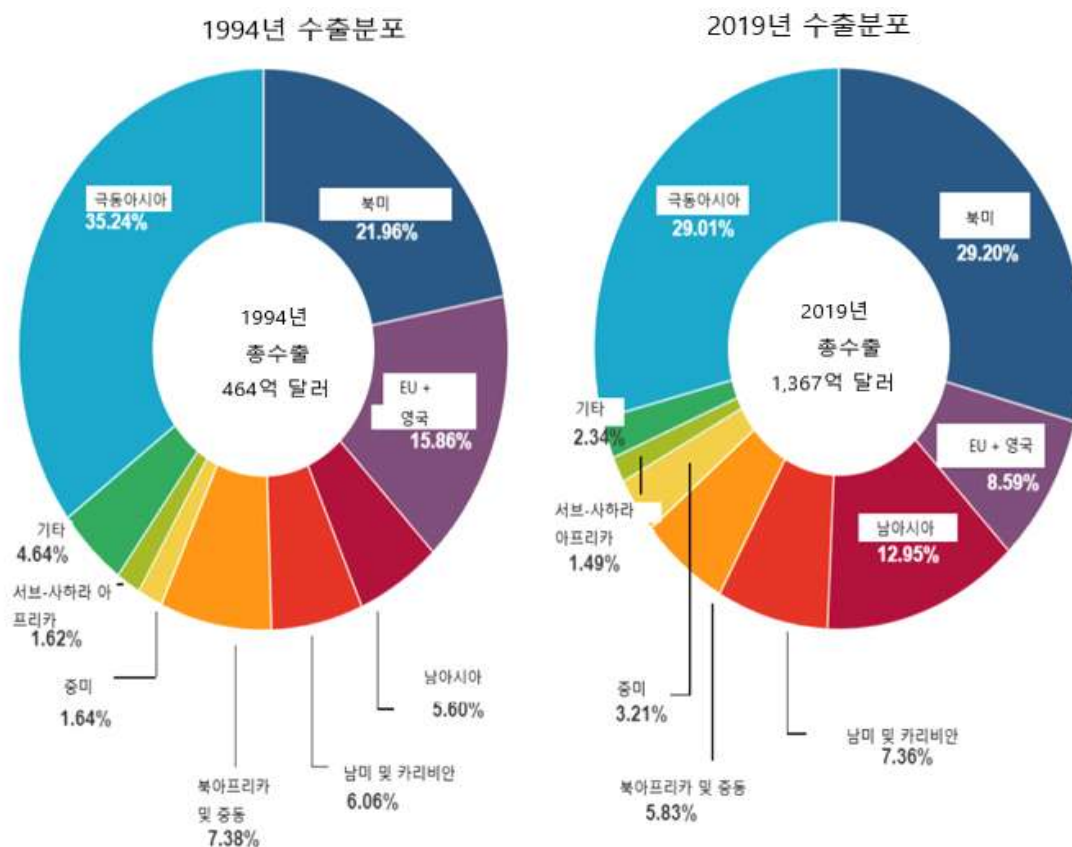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2020.

또한, 4반세기 동안 미국의 농산품 수출처도 변화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2020년 변경되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의 결과가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94년의 총 농산품 수출은 461억 달러인데 동아시아가 35.24%, 북미가 21.96%, EU와 영국이 15.88%, 북아프리카와 중동 7.38%, 남미와 카리비안 6.06%, 남아시아 5.60%등의 분포로 구성되었다. 2019년에는 북미가 29.20%로 최대의 수출처로 부각되었고, 동아시아는 29.01%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남미와 카리비안도 7.3%로 증가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EU와 영국은 8.5%로 급격하게 비중이 줄었다. <그림 4>가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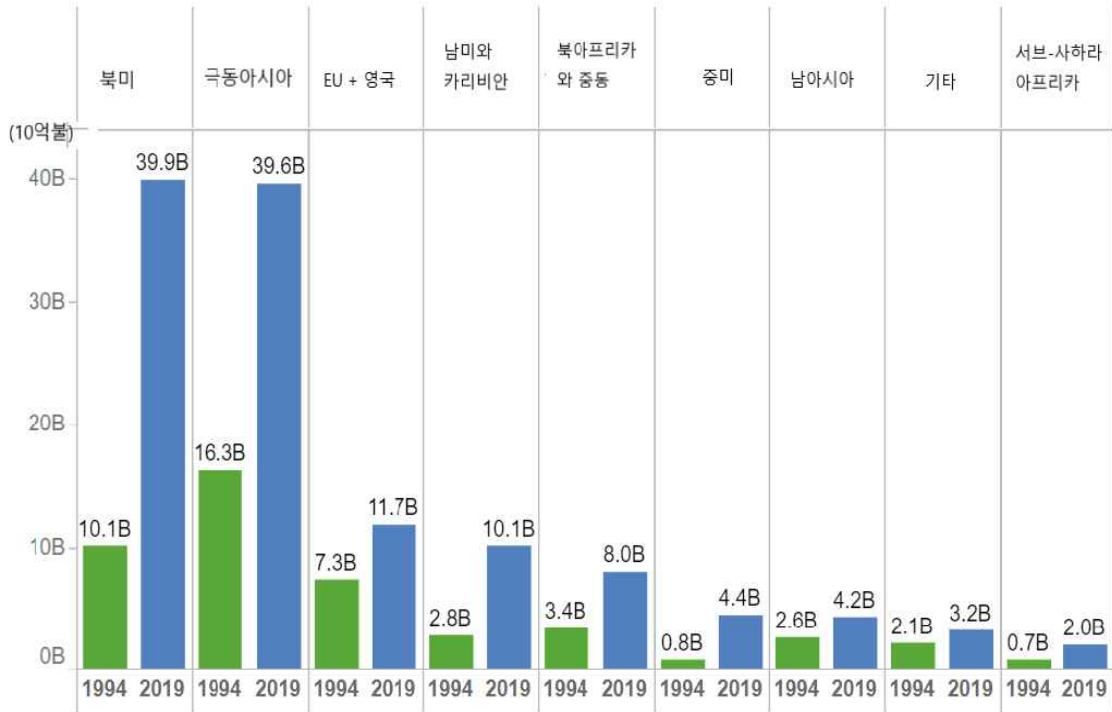
1994년과 2019년을 가치측면에서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특히 북미는 1994년 101억 달러에서 2019년 399억 달러, 극동아시아는 163억 달러에서 396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그림 5). 북미는 NAFTA의 영향, 극동아시아는 경제규모의 확대가 크게 증가한 원인이다.

<그림 4> 미국 농산품 수출의 지역별 점유율 비교(2014년과 2019년)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2020.

〈그림 5〉 지역별 미국의 수출 가치 비교(1994년과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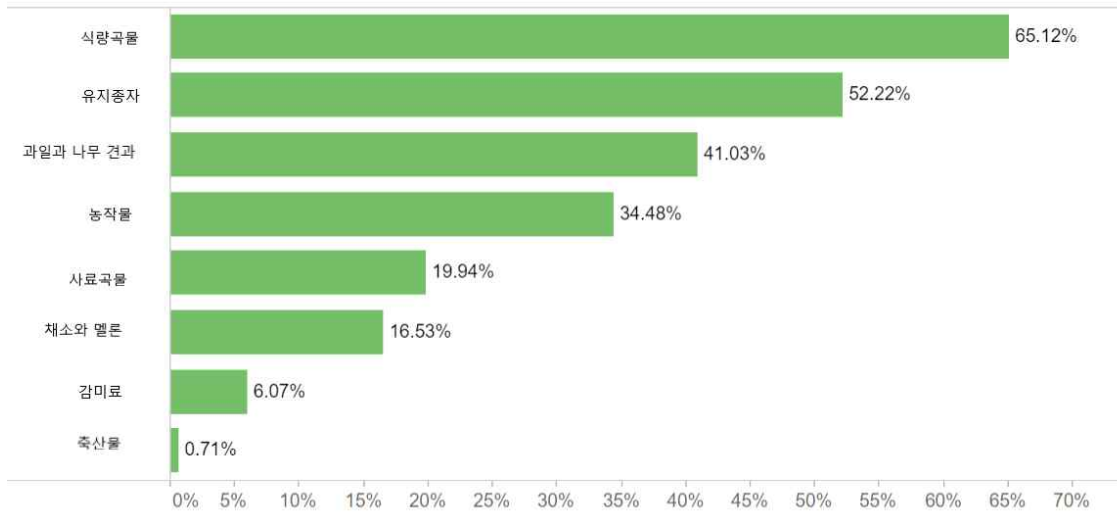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2020.

다른 나라에 판매한 미국의 농산물 및 식품 생산의 점유율은 해외 시장에서의 의존도를 가리킨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8년 이후로 세계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ERS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추산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의 기간에 미국의 농업생산 중에서 평균적으로 수출 점유율이 비가공품의 22%와 가공품의 21%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국내의 생산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은 식량곡물은 65.12%에 달하고, 유지종자 52.22%, 과일 및 견과 41.03%, 농작물 34.48%, 사료곡물 19.94%를 차지하는 등, 수출이 국가경제나 농업인의 소득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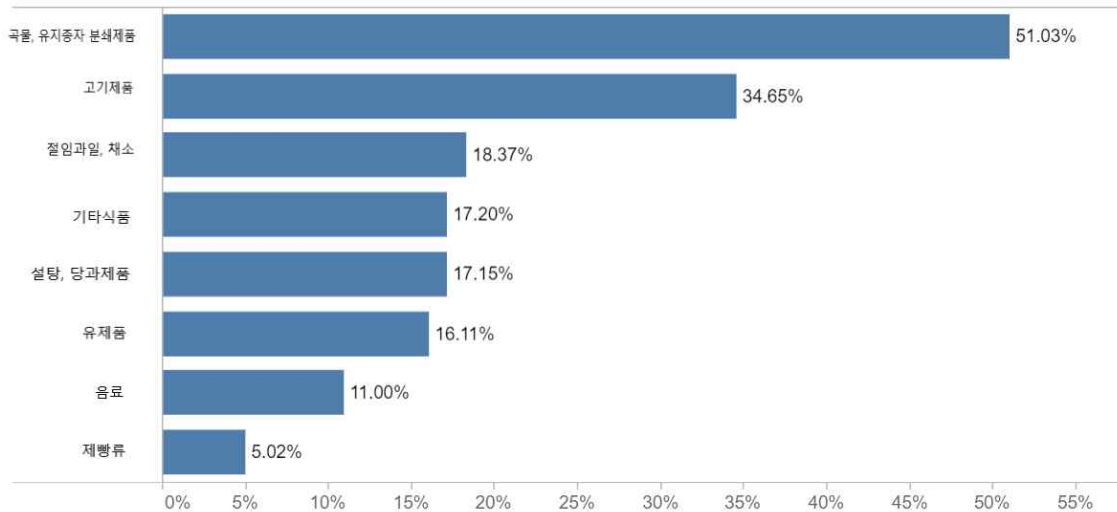
〈그림 7〉은 국내 생산의 가공품 중 수출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나타낸다. 곡물, 유지종자, 분쇄제품의 수출 점유율은 51.03%, 육류제품 34.65% 등, 수출의존 비율이 높다.

<그림 6> 미국의 농업생산 중 비가공품 수출 점유율(2008-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2020.

<그림 7> 미국의 농업생산 중 가공품 수출 점유율(2008-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2020.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농산품의 주요 수출국, 수출액, 점유율은 <표 1>과 같다. 캐나다가 가장 크게 15%, 멕시코 14%를 점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출국인 EU-28과 일본이 다음으로 각각 10%, 9%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비슷하게 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미국 농산품 주요 수출국(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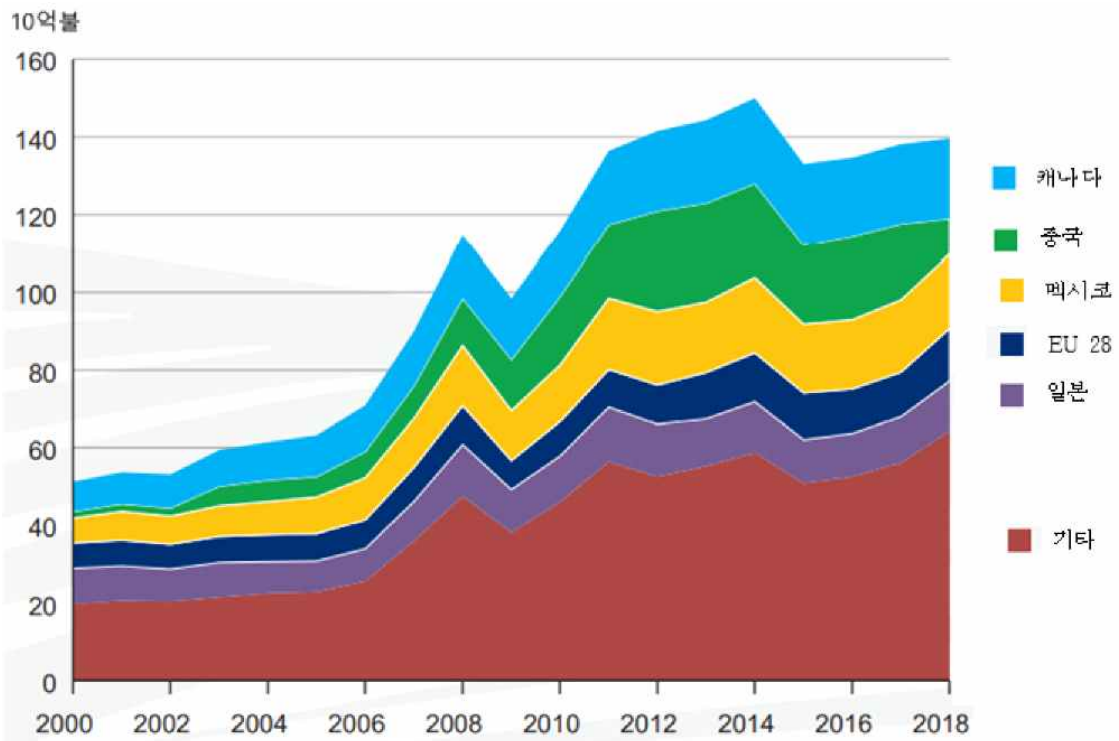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국가/구분	수출액	점유율
캐나다	209	15
멕시코	191	14
EU-28	135	10
일본	129	9
중국	91	6
한국	83	6
기타 국가들	557	40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Trade Multipliers. 2020.

〈그림 8〉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농산품 수출 변화를 나타낸다. 대부분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에 있지만, 중국의 점유율은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2018년도에 많이 줄었다.

〈그림 8〉 5대 미국의 농산물 수출국(2000-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 and Food Statics, Feb. 5, 2020.

2.3. 미국의 농산품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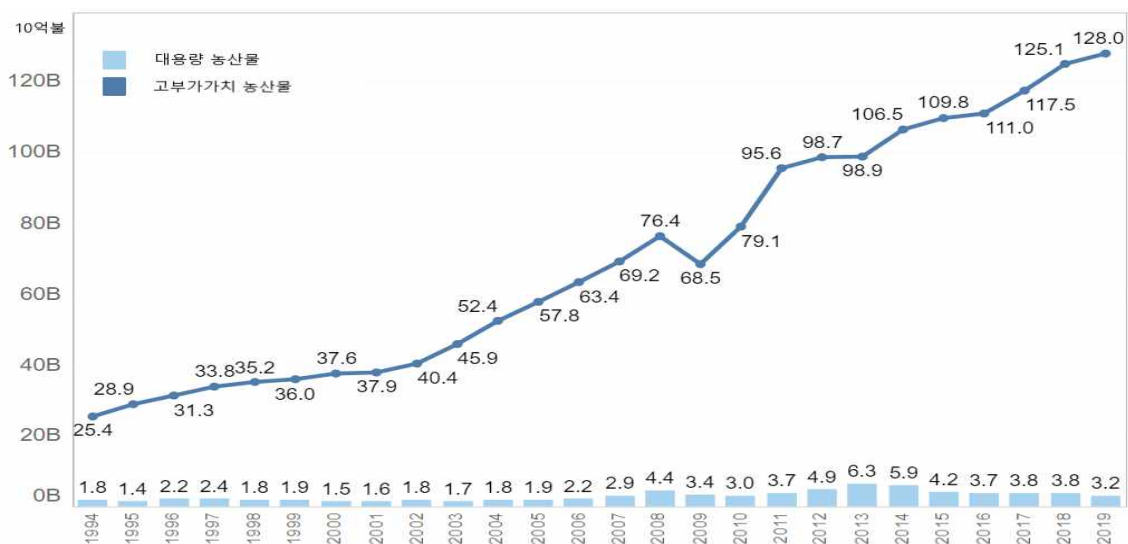
미국 농산품 수입도 지난 4반세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확대는 주로 소비자 지향의 농산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1994년과 2018년 사이에서 전체 농산품 수입은 1,290억 달러에 도달해서, 최저 수준을 보였던 2000년이 270억 달러의 3배 이상이다(그림 9).

소비자 지향적 제품이 미국의 농산품 수입을 지배했고, 총 농산품 수입보다 1994년 이후 연평균 7%이상 증가하는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연중 내내 식품의 다양성 수요의 증가는 미국 생산의 휴지기 동안 원예제품의 수입을 촉진했다.

2019년에는 미국의 원예 제품 수입이 고부가가치 농산품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설탕이나 코코아, 커피, 고무와 같은 열대농산품이 약 17%를 차지했다(그림 9 참조).

미국에 농산품을 공급하는 20대 큰 공급자는 베트남(후추, 캐슈넛), 페루(신선과일), 인도(후추, 참깨, 채소 추출물), 스위스(탄산음료), 그리고 싱가포르(열대유와 방향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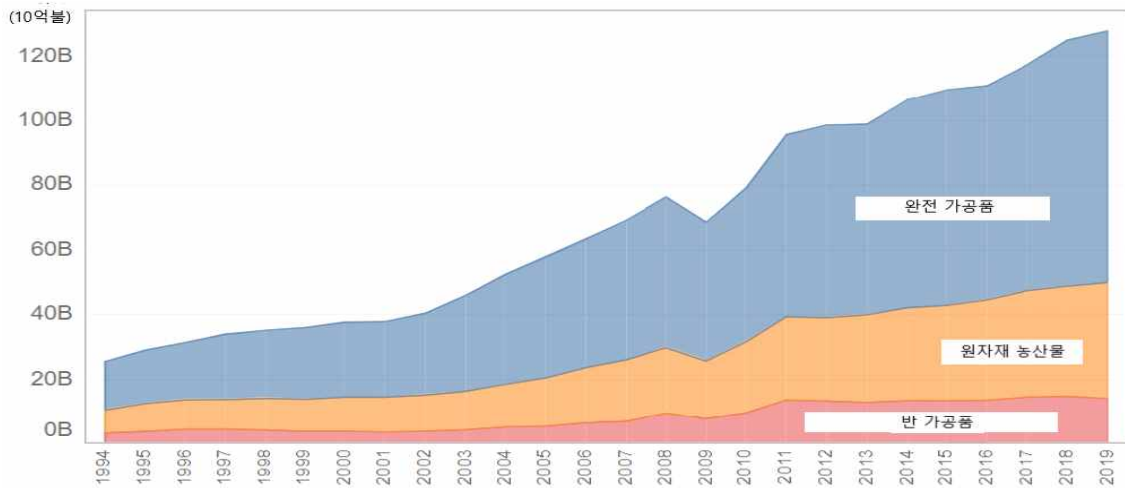
<그림 9> 연도별 미국의 대용량과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입(1994-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2020.

미국의 가공 수준별 수입을 보면, 완전 가공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원자재 농산물은 완만하게 상승한다. 반면 반가공품은 201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0> 연도별 미국의 가공수준별 고부가가치 농산품 수입(199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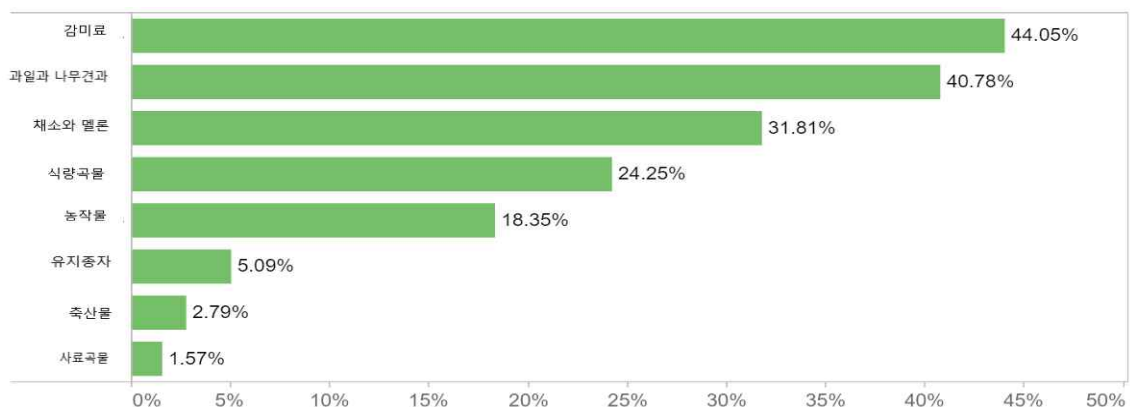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2020.

미국의 인구가 규모나 다양성에서 증가함에 따라 국내적으로 식품의 양과 다양성도 확대되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전반적인 식품과 음료의 수입 비중은 2009년에 11.7%에서 2018년에는 16.6%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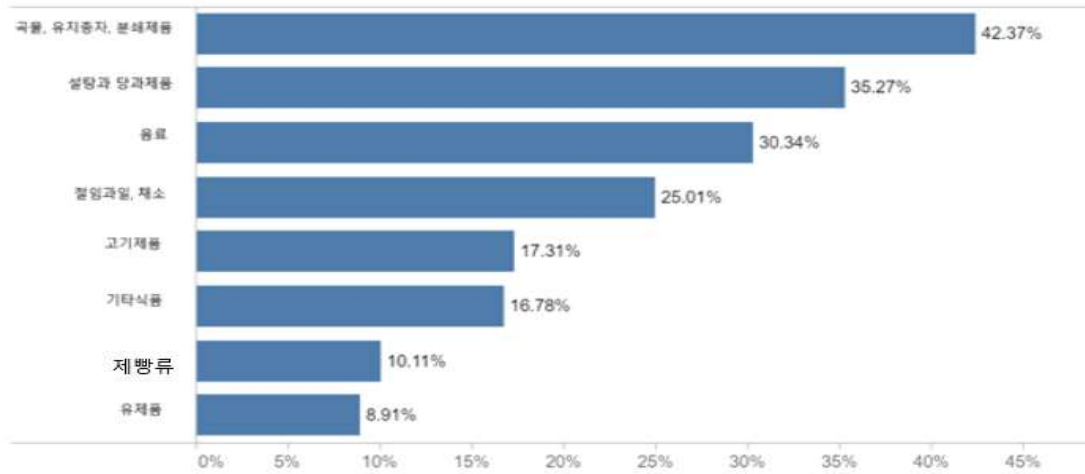
가치 기준으로 보면, 비가공품보다 가공품의 수입 비중이 높았다. 가공품은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소비증가의 비중의 증가를 견인했지만, 2013년 이후 식량곡물과 원예제품과 같은 비가공품이 식품 소비에서 수입 비중의 증가를 견인했다(그림 11, 그림 12).

<그림 11> 미국의 농업생산 중 비가공품 수입 점유율(2008-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2020.

〈그림 12〉 미국의 농업생산 중 가공품 수입 점유율(2008-201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2020.

미국의 농산품 수입은 멕시코로부터 20%, EU-28개국으로부터 18%, 캐나다로부터 18%로, 세 곳에서 50%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표 2).

〈표 2〉 미국의 농산품 주요 수입국(2018)

단위: 억 달러, %

국가/구분	수입액	점유율
멕시코	259	20
EU-28	238	18
캐나다	230	18
중국	49	4
인도네시아	34	3
브라질	33	3
호주	32	2
칠레	31	2
기타 국가들	380	30

자료: USDA, ERS, Agricultural Trade Multipliers. 2020.

2.4 관세 이슈

농업분야에서 시장접근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제한된다. WTO(국제 무역기구)의 안팎에서 협의된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여전히 다양한 교역 제품에 남아있다. 이에 더해 국가들은 무역정책 도구들(관세쿼터, 세이프가드,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 혹은 의무이다. 관세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 수준을 낮추는 것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기본 목적이었다.

이를 대체해서 우루과이협정은 제품의 시장 접근을 제한했던 쿼터나 다른 정책들을 단순한 관세로 대체했다. 관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관세는 우루과이협정에서 제거되었던 기존 집행에 의해 가능했던 보호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그럼에도 많은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가 존재한다. 단순한 평균 관세를 세계무역기구의 구성원 국가들에게 평균 15~22%로 확대했다. 그러나 양자협정을 통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보, 상호호혜를 실행하는 국가가 많아졌다.

거대한 농산물무역 국가들 중 한국, 이집트, 터기, 스위스, 인도, 태국은 높은 30% 이상의 농산물관세를 유지한다. 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러시아, 중국은 평균 20%를 유지한다. 반면 주요 수출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칠레와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는 평균 10% 이하를 적용한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의 최대한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스위스처럼 1,000% 이상인 국가가 있는가 하면, 브라질이나 중국처럼 50-100%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표 3).

〈표 3〉 농산물 관세의 최대한도

1,000% 이상	500-1,000%	200-500%	100-200%	50-100%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EU	중국
이집트	한국	미국	멕시코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일본	러시아	인도	필리핀
	타이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터키	남아프리카	
		아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World Tariff Profiles, 2015.

농산물에 대한 평균 양허관세의 주요 32개 국가별 관세율은 <표 4>와 같다.

<표 4> 농산물에 대한 평균 양허관세-주요 32개국(2016)

100% 이상	50-100%	40-50%	30-40%	20-30%	10-20%	0-10%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인도	이집트 콩고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터키 한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멕시코 남아프리카	태국 브라질 필리핀 아르헨티나	칠레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타이완 캐나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미국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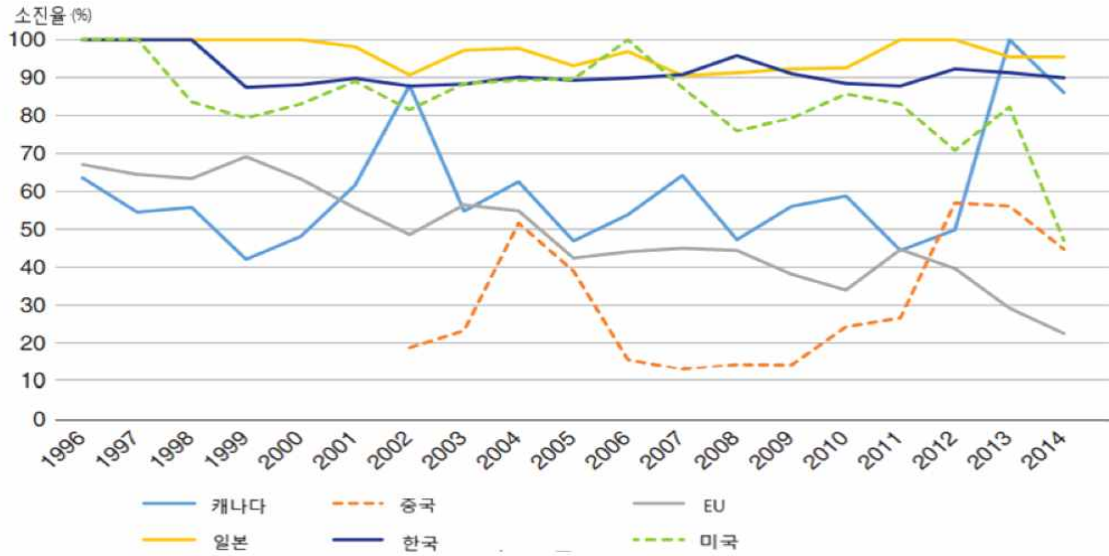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World Trade Organization, 2016.

WTO 규칙에 따르면, 다음의 두 조건에서 최호혜국 수준 이하의 관세부과를 회원국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들에게 일반호혜시스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을 적용할 수 있다. 단, 호혜 대상국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미국은 108국가에 GSP를 적용하고 있으며, 저개발국가들(Least-Developed Countries)에 이 수준보다 낮은 특별선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47개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둘째, 회원국들은 상호적 기반에서 제공되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호혜적 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s)을 맺을 수 있다. 무역 가치의 측면에서 가장 큰 호혜적 무역협정은 EU와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이 해당된다. 2010년 이후로 중국에 이어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PTAs를 추구하고 있다.

관세 쿼터(TRQs)는 특수한 수입량에 대한 증진된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 관세쿼터는 무관세거나 이에 근접한 관세를 부과한다. 쿼터를 넘는 수입에는 제한이 없지만 통산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중 간 무역협정의 골자가 쿼터를 정하는 것이다. 정해진 쿼터 할당량은 소진한 비율은 캐나다는 증가하며, 한국과 일본은 90%~100% 내에서 유지되고, 미국, 중국, EU는 50% 이 내를 보이고 있다(그림 13).

〈그림 13〉 관세율 쿼터 소진율(1995-2014)



자료: Jayson Beckman, John Dyck, Kari E.R. Heerman “The Global Landscape of Agricultural Trade, 1995-2014,”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7. p.33.

2.5. 농무부의 국제 지원 정책

미국의 국제적 지원 서비스는 해외농업청(FA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이 담당한다. 미국 농산물 무역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부터 국제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 농무부는 2018년 회계연도에 351백만 달러 이상을 해외의 식품지원에 사용했다. 농산물의 판매 증가, 학교 어린이들의 안전망, 활력 재생, 문맹 퇴치, 영양 증진, 농업부문 지원 등에 지원했다.

농무부는 국제 교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능력을 강화한다.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세계의 식량 안전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세계 식량안전 전략(2017-2021년까지)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전략 (“미래를 먹이자: feed the future)의 구체적 집행 프로그램은 여러 부문에 걸쳐 진행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맥거번-돌 교육과 아이들 영양을 위한 세계 식량 프로그램(McGovern-Dole: the McGovern-Dole International Food for Education and Child Nutrition Program), 지방과 지역적 정부조달 프로그램(LRP: Local and Regional Procurement Program), 그리고 발전을 위한 식량지원 프로그램(FFPr: Food for Progress Program)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국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세계적인 긴급 식량 필요에 대응하는 자금을 보유하는 빌 에머슨 인본주의 트러스트(Bill Emerson Humanitarian Trust), 개발도상국의 식량안전과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그들 국가의 연구자나 정책결정자를 조언하고 훈련시키는 보라그 펠로우십 프로그램(Borlaug Fellowship Program), 개발도상국이나 중간 소득국가의 농업전문가들을 위한 단기간 미국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코크란 펠로우십 프로그램(Cochran Fellowship Program), 농업 교육자들의 한 학기의 장기 연수 프로그램인 교환교수프로그램(Faculty Exchange Program) 등이 있다.

여기서는 핵심적인 세 개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전체적으로 이 핵심 프로그램을 통한 결과는 <표 5>가 보여준다.

농무부의 국제식량지원과 능력구축 프로그램은 2018년에 38개 개발도상국에 4.6백만 명의 수혜자를 지원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시행된다. 식량지원으로 351백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고, 240천 톤(MT)의 식량이 지원되어 전체적으로 4.6백만 명이 수혜를 받았다.

<표 5> 2018 미국 농무부의 식량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농작물(규모/가치)	총 가용 자원
증진을 위한 식량지원	195,910MT/92,238천 달러	137,016천 달러
맥거번-돌	43,720MT/30,679천 달러	204,000천 달러
농무부의 지방과 지역 프로그램	-	10,000천 달러
계	239,630톤/122,917천 달러	351,016천 달러

자료: USDA International Food Assistance Report Fiscal Year 2018.

2.5.1. Food for Progress

1985년 식량 증진법(Food for Progress Act of 1985)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농업분야의 개인기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신생 민주주의를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8년의 경우, 1,016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31개국에서 52개 사업을 시행하였다.

증진을 위한 식량 프로그램(7 USC 1736o)은 자원봉사조직들과 개발도상국에게 농업생산성을 증가하고, 시장과 교역에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훈련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국제조직들과 같이 진행한다. 농부부에 기증된 미국 농산물을 판매해서 만든 기금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8년에는 191,965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68,805명의 개인들이 기술, 관리 실습, 농민들이 그들의 농산물을 판매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표 6>은 2018년 식량증진법의 실행을 통해 혜택을 받은 지역별 분포를 보여준다. 아시아지역에 77,033천 달러, 아프리카에 12,831천 달러, 남미에 47,152천 달러를 지원했다.

<표 6> 지역별 식량증진 수혜 가치(2018)

단위: 달러, 톤

지역	금액	규모
아시아	77,032,777	133,100
아프리카	12,831,136	19,360
남미	47,151,718	43,450
계	137,015,631	195,910

자료: USDA International Food Assistance Report Fiscal Year 2018.

2.5.2. McGovern-Dole

McGovern-Dole(7 USC 1736o-1)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조직들과 국제 조직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라시아, 중남미의 높은 식품 불안정 국가들의 여성,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학교급식과 영양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법적 목적은 굶주림을 줄이고 문맹률을 낮추며, 학령아동들의 건강과 식사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여자 어린이에 집중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3백만 명이 직접 수혜를 받았다. 215백만 달러의 예산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지방과 지역프로그램에 10백만 달러, 1백만 달러 수질정화사업을 포함하여 215백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했다.

<표 7>은 지역별 지원 현황을 나타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수혜지역이고 아시아 그리고 중미의 순서를 보인다.

〈표 7〉 2018 지역별 농무부 맥거번-돌 수혜

단위: 달러, MT

지역	금액	규모
아시아	52,000,000	7,460
중미	27,000,000	7,740
아프리카	97,000,000	28,520
계	176,000,000	43,720

자료: USDA International Food Assistance Report Fiscal Year 2018.

2.5.3. Local and Regional Food Aid Procurement(LRP)

농무부의 LRP 프로그램은 지역이나 지방에서 생산된 작물을 사용하여 개발지원과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봉사조직들과 국제조직과 같이 일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다. 이 프로그램은 맥거번-돌 프로그램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조직들에 우선순위를 둔다. 2018년에 지속 프로그램과 새로운 사업으로 91,000명 이상이 직접 수혜를 받았다.

3. 미국 농산품 교역 관련 정책

미국은 농산품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정책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농업법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3.1. 농산물 무역 증진 프로그램(ATP)

농산물 무역 증진 프로그램(ATP: Agricultural Trade Promotion Program)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업자들이 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돕고, 다른 나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ATP는 고객에 대한 조언, 공공관계, 무역박람회나 전시회 참여, 시장 조사, 그리고 기술적 지원과 같은 활동을 하는 미국의 조직들에게 비용을 분담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ATP는 주로 전국적 혹은 지역적 비영리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어업과 산림 제품 생산자를 포함하여 미국농업의 모든 부문에서 가능하다. 해외농업

청은 상품신용공사법의 범주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상품신용공사(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는 이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이슈화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혹은 잠재적인 비관세 장벽에 의해 가해지는 활동을 하는 농산업에 대해 지원한다. 이러한 규칙은 필수사항, 변제를 위해 가능한 활동, ATP신청 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한다.

3.2. 유제품 수입 면허 프로그램

수입허가는 농무부가 미국의 유제품의 수입을 위한 할당관세율 체제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의 하나이다. 유제품은 할당관세에 속하기 때문에 낮은 계층의 관세율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해외농업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인들도 연 중(9월 1일부터 10월 15일)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할당 관세 하에서 특정된 양까지만 수입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 양을 넘어 수입할 수 있다. 높은 관세율도 1995년 우루과이 협정 이후 15%로 낮춰졌다. 따라서 관세율과 수입량은 제품에 따라 다양하다.

3.3. 신흥 시장 프로그램(EMP)

신흥 시장 프로그램(EMP: Emerging Markets Program)은 미국의 농산품 수출자들이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나라들과 상업적 시장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수출을 촉진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농업청은 실현가능성 연구, 시장 조사, 부문별 평가, 훈련이나 비즈니스 워크숍과 같은 활동에 대한 비용분담을 제공한다.

특이한 것은 모든 미국의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정부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흥시장에 대한 특별한 국가를 고정시키지 않고,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매년 자격이 있는 국가에 대한 지침이 제공된다.

3.4. 해외시장 개발 프로그램(FMD)

해외시장 개발 프로그램(FMD: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은 미국 농산품의 장기 수출시장을 창조하고 확대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해외농업청은 미국의 농산품 생산자와 가공업자와 파트너로 비용분담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 지향적 브랜드 제품 보다는 미국 상품의 일반적인 증진에 초점을 둔다. FMD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해외의 수입제한을 감소 시키거나 수출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 기회를 표방한다.

3.5 기타 프로그램

기타의 무역 증진 프로그램들은 수출 신용보증 프로그램(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 해외 대사관에서 과학자들이 환경, 과학, 기술, 건강과 관련된 이슈에 전문적 지원을 하는 대사관 과학 동료 프로그램(Embassy Science Fellows Program), 시장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등이 있다. 이런 모든 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4. 농산물 관련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4.1. EU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 대상이며, 물품, 농작물, 서비스 3개 분야에서 2018년 대EU 총 수출액은 5,910억 달러, EU로부터의 수입총액은 7,111억 달러이다.

EU와의 농산물 관련 협정의 주요 내용은 무역에 있어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의 EU 시장 접근성 확대, 미·EU간의 규제·표준 양립성 향상, 농업 바이오 기술관계의 정보교환·기술협력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EU 무역협상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EU가 농업 분야를 협상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의회나 농업단체가 대EU 무역협

상에 농업분야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자동차에의 추가관세와 연동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편 EU는 2019년 4월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에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관한 권한을 주기로 합의하여 협상체제를 갖추었지만, 농업분야는 협상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EU 무역협상의 진전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EU 수입 확대 합의를 꼽는다. 이 합의는 2019년 11월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현행 무관세 수입물량(연 4만 5,000톤) 내에서 미국산 쇠고기 쿼터를 2020년부터 늘릴 수 있다.

WTO 규칙상 무관세 수입물량 안에 미국산 이외의 쇠고기 할당도 의무화되어 있어 타국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할당물량은 당초 1만 8,500톤에서 7년에 걸쳐 3만 5,000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무관세 쿼터 증가 대상인 쇠고기는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하지 않은 쇠고기라는 조건이 있다²⁾.

이 외에 미국의 대EU 무역협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영국의 EU 탈퇴를 들 수 있다. EU에서의 영국은 다른 가맹국과 비교하면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영국이 EU에서 이탈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EU의 자세가 더욱 경직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 만약 미국과 영국 자유무역협상 결과 영국의 규제 틀 등이 보다 미국에 적응하는 모습을 갖춘다면, EU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4.2. 영국

영국의 EU로부터 이탈에 따라 협의를 위해 설치한 무역투자 워킹그룹(미국-영국 무역투자 워킹그룹(U.S.-UK Trade and Investment Working Group))에서는 1) Brexit 실시 전 미국과 영국의 무역·투자 관계의 강화, 2) Brexit에 따라 미국과 EU 간에 체결되고 있는 각종 합의의 미·영 합의로의 이행을 위한 조정, 3) Brexit 후의 미·영 자유무역협정을 향한 기본적 방침 등의 책정, 4) 세계적인 각종 무역 문제에서의 연계에 관한 주제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총액이 연간 2,300억 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이 무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

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for the 116th Congress," Jan, 2020, p.31.

한 장벽에 대한 대응으로 물품무역, 투자, 지적재산 등을 포함한 24개 분야에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농작물 무역 분야에서는 5개의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영국과의 농작물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미국산 농산물의 영국 시장 접근 확대, 양국 간의 규제·표준의 양립성 향상, 농업 바이오 기술 관계의 정보 교환·기술 협력의 시스템 구축 촉진에 관한 것이다.

양국 간의 농산물 무역 관련 쟁점은 염소소독 닭고기(Chlorinated Chicken) 문제이다. 미국은 닭고기의 염소소독을 허용하는 반면, EU는 미국산 염소소독 닭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U에서의 탈퇴 후에도 영국은 염소소독 닭고기 수입에 소극적이다. 또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호르몬 소 수입에 대하여도 영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은 자국산 양고기·쇠고기의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4.3. USMCA

농산물, 식품분야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수출처(206억 달러, 2017년)이며, 멕시코는 세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186억 달러, 2017년)³⁾이다. 1993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NA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이들 2개국에 대한 농작물 수출이 확대되어 왔다. 예를 들어, 1992년 현재 캐나다·멕시코로의 농작물 수출액은 87억 달러이었지만, 25년 후인 2017년에는 390억 달러로 303억 달러 증가하였다. 미국의 캐나다·멕시코로부터의 농작물 수입도 계속 증가하여 같은 기간 65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로 405억 달러 증가하였다.

반면, 농작물 분야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2014년부터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는 NAFTA 체결 이후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미국이 불만인 상황에서 NAFTA가 USMCA로 대체되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에 따르면, USMCA 체제를 통하여 연간 미국산 농작물·식품 분야의 수출액이 2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USMCA에서는 주로 미국·캐나다 간 농작물 무역의 변화가 예상된다. 대 캐나다 수출에서는 미국산 유제품·닭고기·계란·밀 등의 수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에

3)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April, 2019.

서는 캐나다산 설탕이나 유제품 등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멕시코간은 이미 농작물의 관세가 제로이기 때문에, 농작물 무역에서는 큰 변화가 전망되지 않으며, 현재의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⁴⁾ 또한, 멕시코와의 무역적자의 개선에 관하여서도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⁵⁾.

NAFTA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농작물·식품의 관세는 제로로 되어 있었지만, 미국산 유제품이나 가금류를 캐나다가 수입할 때는 제로 관세 조건에서 제외되었다.⁶⁾

USMCA에서는 NAFTA에서 제로관세 제외 취급을 받던 품목에 변화가 가해지고 있다. 우선 USMCA에서는 미국산 유제품의 캐나다 시장접근이 확대된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산 유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한도를 초과하면 31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USMCA는 미국산 유제품의 무관세 한도를 매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정되는 유제품에는 우유, 치즈, 크림, 스낵밀크 파우더, 농축 우유, 요구르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관세 쿼터는 1년차에 16,667톤, 6년차에 100,000톤, 19년차에 109,103톤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USMCA에서는 관세할당제 실시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규정에는 기존의 저관세 할당량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전 통지, 저관세 할당량을 이용한 수입의 실시 정도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8〉 상정되는 무관세 쿼터 증가량

단위: 톤

유제품의 종류	1년차	6년차	19년차
밀크	8,333	50,000	56,905
크림	1,750	10,500	11,950
스낵밀크 파우더	1,250	7,500	8,536
버터, 크림 파우더	750	4,500	5,151
산업용 치즈	1,042	6,250	7,113
치즈, 전종류	1,042	6,250	7,113
밀크 파우더	115	690	785

4)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April, 2019, p. 22.

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Provisions of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Oct., 2018.

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Provisions of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2019. 4.

유제품의 종류	1년차	6년차	19년차
농축 밀크	230	1,380	1,571
요구르트, 버터밀크	689	4,135	4,706
분말 버터밀크	87	520	592
웨이 파우더	689	4,135	na
천연밀크 관련 제품	460	2,760	3,141
아이스크림	115	690	785
기타 유제품	115	690	785
합계	16,667	100,000	109,103

자료: USDA, “USMCA Agriculture TRQs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ppendix-C” (USTR)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2019. 4.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유제품 분야 외에 가금 분야의 대 캐나다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USMCA에서는 미국산 닭고기 및 계란에 대한 캐나다의 무관세 쿼터가 늘어난다. USMCA 하에서는 닭고기 무관세 쿼터는 1년차에 47,000톤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6년차에는 57,000톤으로 증가한다. 그 후로 10년간 매년 1%마다 무관세 쿼터를 늘려 16년째에 62,963톤에 이른다.

그리고 이 무관세 수입 물량이 유지될 전망이다. 달걀에 대해서는 새로 1,000만 더즌의 무관세 한도를 매년 받을 예정이다. 또 칠면조 및 구이용 계란의 무관세 한도는 캐나다 측 생산 상황에 따라 설정된다.

USMCA에서는 미국이 캐나다산 유제품, 설탕, 땅콩, 면화를 보다 많이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미국은 캐나다산의 유제품, 설탕 등의 저관세 할당을 증가시키고, 면화와 땅콩은 USMCA 발효 후 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캐나다산 땅콩에 대한 미국의 현행 관세는 131.8%이다.

4.4.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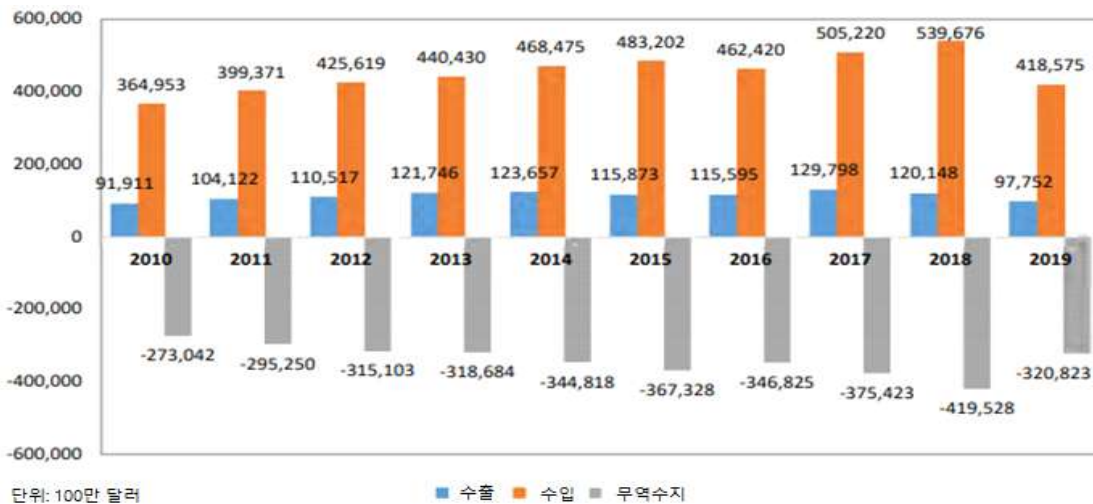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상품 수출액은 1,214억 달러, 수입액은 5,396억 달러로, 약 4,195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무역적자의 과거 10년의 경과를 보면, 2010년 시점에서는 2,730억 달러이었던 것이 2018년까지 약 1,500억 달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는 양국의 무역 갈등으로 수입, 수출, 적자폭이 줄었다. 미·중간 무역 갈등의 영향은 농산품 무역에서도 드러났다. 2018년 4월 중국이 과일, 견과류, 돼지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수입품 30억 달러 상당에 추가관세, 대두를 포함한 106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관세 대상이 된 미국 생산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 후 진행된 양국의 협상에 따라 이미 적용된 보복관세, 약 2,500억 달러 상당에 부과한 25%의 관세는 유지하되, 9월 발동한 1,200억 달러어치의 관세율은 15%에서 7.5%로 낮추기로 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중국도 예정하였던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하였다.

이러한 무역마찰로 인하여 2018~2019년 미국의 중국과의 물품 교역액은 수입이 5,396억 달러에서 4,185억 달러로 1,211억 달러 감소하고, 수출도 1,201억 달러에서 977억 달러로 224억 달러 감소하였다. 전체 수출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적자도 987억 달러 축소되어 4,195억 달러에서 3,208억 달러로 나타났다(그림 14).

<그림 14> 미국과 중국의 무역 변화 추이(2010-2019)



자료: US Census Bureau, “Trade in Goods with China”,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년 3월에서 재인용.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식품과 농작물 등을 800억 달러 구입·수입⁷⁾하기로 하였다. 농작물만 놓고 보면 2년간 320억 달러 상당의 수입⁸⁾을 합의하였고, 대상에는 유지종자, 식육, 곡물, 면화, 어패류⁹⁾ 등이 포함된다.

7) USTR,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act Sheet -Agriculture and Seafood Related Provisions”, 2020. 1. 15.

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China Phase One Deal: Agriculture”, 2020. 1. 22.

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China Phase One Deal: Agriculture”, 2020. 1. 22.

중국은 또 밀, 옥수수, 쌀에 관하여 WTO 규칙에 따른 적절한 관세할당제 (Tariff Rate Quota: TRQ) 실시에 동의하였다. 중국의 관세할당제 실시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4월에 승소하였다. 이에는 밀·옥수수·쌀에 관하여서 저관세가 적용되는 1차 세율 수입쿼터를 중국이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배경이 있었다¹⁰⁾. 관세 할당제의 적절한 실시로, 이러한 작물의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으로의 2018년 농작물 수출액은 2017년 대비 46% 감소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해당 기간 사이에 감소한 중국의 수입이 회복해 나가는 방향만으로,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장 확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¹¹⁾. 또 중국의 미국산 농작물 수입은 시장 상황에 따라¹²⁾ 70여개로 추정되어 2년간 32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¹³⁾.

4.5. 기타 국가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의 감소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다른 수출처를 개발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와 경제성장 등의 이유로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그 외에도 인도·필리핀·베트남·방글라데시·일본 등이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사하라 사막 이남(Sub-Saharan Africa)의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장기 수출시장으로 꼽혔다. 또한 중동지역도 유망지역이 되었다(표 9).

10)USDA, “Study shows China’s tariff rate quota severely impacted U.S. wheat exports

11)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China Phase One Deal: Agriculture” , 2020. 1. 22.

12)USTR, ‘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apter 6, Article 6.2.1” , 2020. 1. 15.

13)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China Phase One Deal: Agriculture” , 2020. 1. 22.

〈표 9〉 새롭게 부상한 유망 농산물 수출 시장

분류	분야	지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전체	농작물 일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제국
품목별	곡물분야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탄자니아, 케냐
	밀 분야	인도네시아, 한국, 베트남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제국
	낙농분야	동남아시아 제국	-	-
	면화분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터키	-
	돼지고기 분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기타 동남아시아 제국	-	-
	쇠고기 분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	아프리카 제국

자료: 株式会社富士通總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

5. 맺으며: 농산물 무역 전망

대부분 해외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소비는 쌀이나 밀 같은 주식에 대한 비용지출이 줄어드는 대신에, 고기, 유제품, 과일, 채소와 같은 고가치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는 세계적으로 식품 판매를 다시 형성하고 세계 식품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한다.

식품공급자와 소매업자들도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한다. 미국의 농산품 수출은 국가경제와 농업인의 소득과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의 수출은 해외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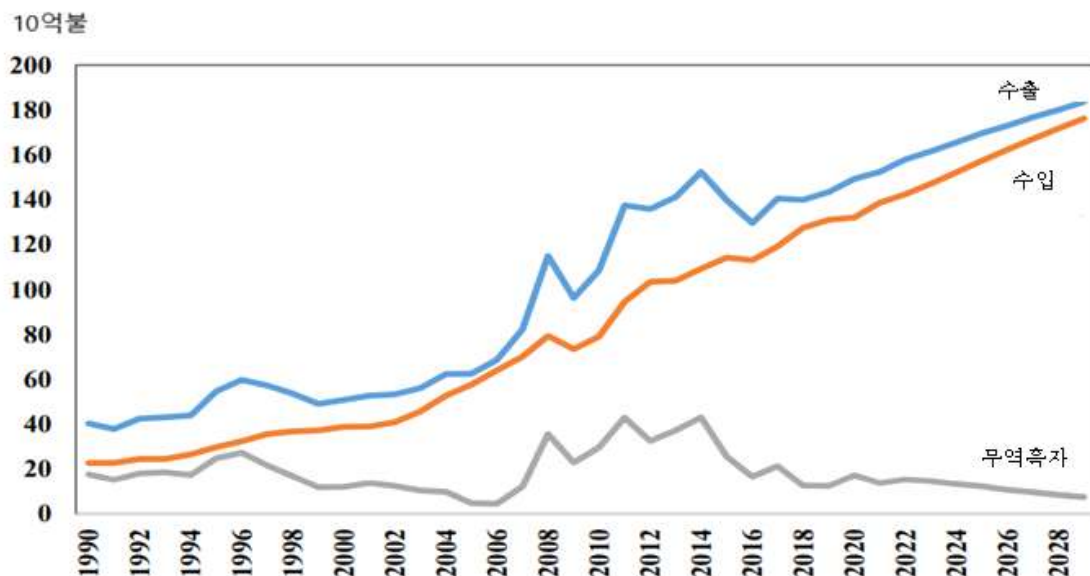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 중국 농산품 수출이 줄었음에도, 기타 지역 국가들로의 수출이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지 곡물 수출 경쟁국인 브라질 같은 나라와의 대두나 옥수수 같은 곡물의 수출 경쟁의 심화로 가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이들 국가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육류, 곡물, 유지종자, 면화소

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인구증가(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어 신흥국들의 농산품에 대한 수요를 강하게 유인할 것이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중국 등의 생산, 소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식생활의 다양성이 고부가가치 농산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미국의 농산품 무역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밀, 대두, 옥수수, 쌀 등의 곡물의 세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농작물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농무부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농산품 수출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무역 흑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그림 15>는 미래의 미국 농산품 무역의 방향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런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생산활동과 정부의 무역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그림 15> 연도별 미국 농산품 무역 가치(1990-2028)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9, 2020.

참고문헌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for the 116th Congres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US-China Phase One Deal: Agriculture”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8, “Agricultural Provisions of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Agricultural Provisions of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

Jayson Beckman, John Dyck, Kari E.R. Heerman, 2017, “The Global Landscape of Agricultural Trade, 1995-2014,”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US Census Bureau, 2020, “Trade in Goods with China” .

U.S. Census Bureau, foreign Trade Census, 2020.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0, “Ag and Food Statics.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0,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9”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0, International Markets & U.S. Trade,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0,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foreign Trade Census.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Trade Multipliers. 2020.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World Trade Organization, 2016.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World Tariff Profiles, 2015.

USDA International Food Assistance Report Fiscal Year 2018.

USDA, 2019, “USMCA Agriculture TRQs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ppendix-C” (USTR)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USDA, “Study shows China’s tariff rate quota severely impacted U.S. wheat exports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9, “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U.S. Trade, 2020, Foreign Agricultural Tra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ta

USTR, 2020,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act Sheet -Agriculture and Seafood Related Provisions” .